



2<sup>nd</sup> Week, November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15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심사, 재정, 산림, 오염훈, 불농기
경제·관광	할인, 수출, 코스, 농가, 감귤
지역·사회	침몰, 금성호, 어선, 실종자, 비양도

※ 분석 기간 : 11월 7일~11월 13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9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심사	- 예산 심사 문제 제기 - 신규 항로 개설 예산 심사 - 들불축제 조례 심사 논란
	재정	- 문화·관광 예산의 삭감 논란 -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재정 투입 - 민간 주도형 예산 편성 확대
	산림	- 들불축제 불농기 논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단속 - 산림보호법 적용 문제
	오염훈	- 감귤 산업 지원 강화 - 주민 중심 예산 편성 강조 - 제주~중국 항로 개설 추진
	불농기	- 들불축제 논란 심화 - 불농기 허가 과정 논란 - 들불축제 대체 프로그램 논의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0~11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행사</li> <li>- e제주물 특별 할인전</li> <li>- 소상공인 재기 지원 할인 프로그램</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감귤 수출 감소 전망</li> <li>- 제주 화장품 수출 강화</li> <li>- 농산물 수출 다변화</li> </ul>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웰니스 관광 코스 개발</li> <li>-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코스</li> <li>- 해외 관광객 맞춤형 여행 코스</li> </ul>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 재배 농가 피해 증가</li> <li>- 감귤 농가의 수출 확대 전략</li> <li>- 농가 소득 감소 문제</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 및 수출 전망</li> <li>- 감귤 품질 향상 및 포장 개선</li> <li>- 만감류 수출 확대 계획</li> </ul>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2~13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침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 침몰 사고 경위</li> <li>- 실종자 수색 작업 장기화</li> <li>- 선체 구조 및 인양 계획</li> </ul>
	금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금성호 침몰 원인 조사</li> <li>- ROV 수색과 심해잠수사 투입 계획</li> <li>- 실종자 가족 지원 및 대응</li> </ul>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와 운반선 간의 조업 상황</li> <li>- 어선 안전규정 강화 요구</li> <li>- 사고 해역 수색 확대 계획</li> </ul>
	실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가족 대책 마련</li> <li>-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li> <li>- 수색 장비 및 인력 동원 현황</li> </ul>
	비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양도 인근 사고 해역 상황</li> <li>- 지역 주민의 협조 및 대응</li> <li>- 해경과 해군의 공동 수색</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저고도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 기업과 특화된 소기업을 육성할 계획. 저고도 산업은 항공기술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기술 돌파와 응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
- ✓ 중국 자연자원부는 동아시아 해양 회의에서 첫 국가 생태 보호 복원 공보를 발표 공보는 생태 보호와 복원의 성과를 종합 평가, 2018년 이후 생태 보호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생태 복원 전략과 목표를 제시
- ✓ 중국 민정부와 상무부 등 24개 부처는 고령자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을 공동 발표 고령자의 수요에 맞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형 가정 요양 침대와 ‘지능형 요양원’ 설립이 추진
- ✓ 中 ‘11/11 온라인 쇼핑 축제’ 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성과가 크게 증가. 중국 소비자의 그린 소비 및 국산품 소비 트렌드가 뚜렷
- ✓ 중국 장강삼협그룹은 고품속 해역에서 첫 해상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가동. 어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복합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부에서는 전력을, 하부에서는 어류 양식을 진행할 계획
- ✓ 중국 연구팀은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달성. 저공용 용매를 사용하여 복잡한 재활용 공정을 단순화 실현
- ✓ 중국 인민은행 등 4개 부처는 해상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녹색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 해상 풍력은 대용량 설치가 가능해 시장 잠재력이 크며, 중국은 세계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의 절반 이상 차지
- ✓ 중국 길림성에서 탄소중립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설립.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표준 시스템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 산업에 맞춘 표준 제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계획

- ✓ 중국 핵에너지 고품질 발전 대회에서 ‘핵에너지 산업 신생산력 제안서’가 발표 제안서는 혁신과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핵에너지 생산력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목표로 설정
- ✓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조직 수가 190만 개를 돌파. 특히 동남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전체의 14.7%를 차지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기술 업그레이드, 경제 전략, 취약 계층 지원 등 네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

## ○ **ASEAN**

- ✓ 글로벌 기업들이 마중 무역 긴장 속에서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음.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리튬, 신에너지, 관광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 양국은 신에너지 차량, 리튬 배터리,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의 자원과 생산 능력을 활용해 광업 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획
-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에 따라 팜유 생산량 확대 계획을 발표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목표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4분기 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도소매, 식품, 숙박 부문이 성장 주도함. 전문 서비스, 부동산 부문은 11.2% 성장했으며, 총 매출 407억 링깃을 기록
- ✓ 말레이시아 외교부 차관은 상임이사국의 자의적인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촉구.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거부권 제안을 제시하고,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 말레이시아 재무부 제2장관은 고성장과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국가 투자열망(NIA)'과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 반도체 전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직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
- ✓ 말레이시아 디지털부장관은 EU 대표들과 스마트시티 개발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를 25.5%까지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고, EU 디지털 도시 사업자들로 부터 주요 투자 유치를 계획
-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화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 외국 기업들은 현지 장비 구매 및 현지 계약자와의 파트너십 체결 요구를 받게 되며, 말레이시아의 국가투자열망(NI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

## ○ 필리핀

- ✓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터넷 경제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20% 성장,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이 23% 증가. 필리핀 정부는 인터넷 경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

- ✓ 필리핀 경제개발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더 많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함. 한국과의 협상을 마쳤으며, UAE 및 EU와 협상이 진행

## ○ **일본**

- ✓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에서 소 똥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가동. 메탄가스를 발효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사가현에서 반도체 제조 및 설계, 후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합체가 설립. 산총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기업 및 대학과 협력
- ✓ 우라야스시는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 도입 검토 관광과 베드타운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설정.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유지 비용을 숙박세로 충당할 계획
- ✓ 홋카이도 내 항구들이 해상풍력 발전 거점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대. 석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 ✓ 쿠보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2024년까지 50개소 설치 예정임.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활용해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수익 일부는 농가와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침
- ✓ 니가타현의 2024년 여름 해수욕객 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75만 명으로 집계. 장마 지연과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해수욕객 수는 1990년 822만 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레저 활동의 확산과 기후 변화도 영향이 존재
- ✓ 교토 상공회의소는 교토산업대와 창업자 육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 협정을 체결. 협정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됨. 협정 내용에는 학생 대상의 상업 교육 강화, 창업자 지원, 국제 교류 인재 육성 등이 포함

- ✓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관광 레질리언스 서밋에서 관광산업의 재해 대비 방안이 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함. 회의 결과 ‘센다이 선언’ 을 채택하여, 재해 발생 시 관광업의 지속과 재개를 위한 관민 협력 방안을 제시
- ✓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이 10년간 추진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로 인해 국고 의존성이 심화. 자치권 확대 목표는 희미해짐. 2014년 시작된 정책은 지역 인구 유입을 목표로 했으나,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며 성과를 미취득
- ✓ 나가노현 남신 지역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고순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 이 프로젝트는 지역 기업들이 협력하여, 폐식용유를 정제해 B5 경유로 제조하고 판매할 계획
- ✓ 규슈·오키나와 지역에서 10월 파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82건으로 집계. 소규모 업체 파산 추세 뚜렷. 서비스업과 의료·복지 관련 사업자들이 주요 파산 원인으로 지목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 동북 경제 연합회가 주최한 전략 회의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관금 협력 방안이 논의.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여성 인구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 ✓ 니가타시는 바이오매스 비율을 25%로 높인 쓰레기봉투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감 조사도 실시 예정. 기존에 10% 바이오매스 비율의 쓰레기봉투를 사용 중이나, 새로운 봉투는 식물성 원료를 추가하여 제조 원가를 절감할 계획
- ✓ 후쿠시마시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재생 에너지 규제 조례에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포함하기로 결정. 조례에 따라 기존 시설이라도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 당국이 현장 조사 및 개선 요구 가능
- ✓ 도쿄항에서 일본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 운용이 시작. 크레인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치바현의 공장에서 운송되며, 현장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서 고압으로 충전 가능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11월 7일~11월 13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85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43건, 경제·관광 분야 172건, 지역·사회 분야 340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343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심사, 재정, 산림, 오염, 불농기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심사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예산의 일부 삭감으로 인한 불만 제기, 예외 조항 검토 필요성 부각</li> <li>· 일률적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인해 대규모 스포츠 행사 예산의 감액 문제 대두</li> </ul> </li> <li>- 신규 향로 개설 예산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중국 신규 향로 개설에 90억 원 투입 계획, 타당성 검토 지적</li> <li>· 경제적 효과 불확실성, 향로 개설의 실효성 논란</li> </ul> </li> <li>- 들불축제 조례 심사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불축제 불농기 조례 재의 요구,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 논란</li> </ul> </li> </ul>
----	---

정치·행정		· 제주도의 법리 검토 후 재의 요청, 도의회 재투표 예정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예산의 삭감 논란</li> <li>· 문화 행사 예산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 행사 예산 지원 축소 지적</li> <li>·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의 기계적 기준 비판</li> <li>-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재정 투입</li> <li>·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 90억 원 신규 편성, 경제적 타당성 논란</li> <li>· 투자 대비 실질적 효과와 장기적 손실 가능성 우려</li> <li>- 민간 주도형 예산 편성 확대</li> <li>·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민간 위탁 사업 예산 확대 계획 발표</li> <li>·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 강화 목표</li> </ul>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불축제 불놓기 논란</li> <li>· 들불축제의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논란.</li> <li>· 산림보호법과의 충돌 문제로 조례 재검토 필요성 제기.</li> <li>-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단속</li> <li>·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조치 강화</li> <li>·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 금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li> <li>- 산림보호법 적용 문제</li> <li>·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 보호 및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li> <li>· 산림청의 지침에 따라 불놓기 허가 여부 결정 예정</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산업 지원 강화</li> <li>· 오영훈 지사, 감귤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정책 지원 약속</li> <li>· 신제품 개발 및 수급 관리 등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li> <li>- 주민 중심 예산 편성 강조</li> <li>· 오영훈 지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계획 발표</li> <li>· 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 증액, 민생 안정 대책 강조</li> <li>- 제주~중국 항로 개설 추진</li> <li>· 오영훈 지사, 제주와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 논의 참여</li> <li>· 경제적 실효성 및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와 검토 요청</li> </ul>
	불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불축제 논란 심화</li> <li>· 제주도의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 논란,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 문제</li> <li>· 주민과 행정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 심화</li> <li>- 불놓기 허가 과정 논란</li> <li>· 불놓기 허가가 애월읍장이 승인한 것으로 법적 근거 문제 제기</li> <li>·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한 허가 절차 검토</li> <li>- 들불축제 대체 프로그램 논의</li> <li>· 오름 불놓기 대신 대체 형상화 방안 검토</li> <li>· 달집태우기 및 미디어아트쇼 등 대체 행사 구성 계획</li> </ul>

- 172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할인, 수출, 코스, 농가, 감귤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b>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행사</li> <li>· 제주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계획 발표</li> <li>· 탐나는전 환급행사와 공공배달앱 할인 혜택 제공, 소비 촉진 목표</li> <li>- e제주물 특별 할인전</li> <li>· e제주물에서 최소 5%에서 최대 15% 할인 혜택 제공,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li> <li>· 서귀포in정 항감제 특별기획전에서 추가 할인 제공 계획</li> <li>- 소상공인 재기 지원 할인 프로그램</li> <li>·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할인 프로그램 도입</li> <li>·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특별보증 시행, 금융 부담 경감 목표</li> </ul>
<p><b>수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감귤 수출 감소 전망</li> <li>· 올해 노지감귤 수출 목표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400t으로 예상</li> <li>·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li> <li>- 제주 화장품 수출 강화</li> <li>· 제주화장품인증 기업,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박람회 참가로 해외 시장 진출</li> <li>· 천연화장품 개발과 K-뷰티 트렌드 반영한 마케팅 강화 계획</li> <li>- 농산물 수출 다변화</li> </ul>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류 외 만감류(한라봉, 레드향 등) 수출 확대 계획</li> <li>· 현지화 전략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맞춤형 포장 디자인 도입</li> </ul>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웰니스 관광 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12곳 선정 및 코스 개발 진행</li> <li>· 명상 프로그램과 천연염색 체험 등 힐링 관광 콘텐츠 강화</li> </ul> </li> <li>-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삼다수 플래그십 스토어, 크리스마스 빌리지 콘셉트 코스 운영</li> <li>· 삼다뱅크 등 한정 메뉴와 포토존 설치로 방문객 유도</li> </ul> </li> <li>- 해외 관광객 맞춤형 여행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관광공사, 중국인 관광객 선호 여행 코스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li> <li>· 우도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인기 관광지 포함한 맞춤형 상품 개발</li> </ul> </li> </ul>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 재배 농가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기후로 인한 콩 농가의 피해 증가, 곰팡이와 수발아 현상 확산</li> <li>·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li> </ul> </li> <li>- 감귤 농가의 수출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농가, 생산량 감소에도 수출 다변화와 품질 개선 노력 지속</li> <li>· 잔류농약검사 지원 및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 강화</li> </ul> </li> <li>- 농가 소득 감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 우려</li> <li>·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지원 요청, 농업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li> </ul> </li> </ul>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 및 수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까지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국에 노지감귤 수출 계획</li> <li>· 수출물량 감소, 정부 지원 중단과 국제 해상물류비 상승 영향</li> </ul> </li> <li>- 감귤 품질 향상 및 포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류 품질 관리와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포장 디자인 개선 추진</li>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검사 지원 예정</li> </ul> </li> <li>- 만감류 수출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수출 비중 확대 추진</li> <li>· 연중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마케팅 강화 목표</li> </ul> </li> </ul>

- 370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침몰, 금성호, 어선, 실종자, 비양도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b>침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 침몰 사고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금성호,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선체와 어망 연결 문제 발생</li> <li>· 선박 복원력 문제로 전복 가능성 제기, 선체 수색 작업 진행</li> </ul> </li> <li>- 실종자 수색 작업 장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과 해경의 협력으로 ROV 투입, 심해잠수사 투입 검토</li> <li>· 그물과 부유물 제거 작업 필요성, 선체 진입 가능 시점 논의</li> </ul> </li> <li>- 선체 구조 및 인양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구난업체 바지선 동원, 그물 제거 작업에 최소 1주일 소요 예상</li> <li>· 다이빙벨 활용 선체 진입 시도 예정, 인양 작업 계획 발표</li> </ul> </li> </ul>
<p><b>금성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금성호 침몰 원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획물 과다로 복원력 상실 추정, 조타실과 조리실 내부 조사 필요성 제기</li> <li>·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li> </ul> </li> <li>- ROV 수색과 심해잠수사 투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의 ROV 투입, 선체 주변 수색 진행, 심해잠수사 투입 결정 예정.</li> <li>· 선체와 연결된 어망으로 인해 시야 확보 어려움, 그물 제거 작업 필수</li> </ul> </li> <li>- 실종자 가족 지원 및 대응</li> </ul>

<b>지역·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실 설치</li> <li>· 구조 당국, 실종자 수색 확대 및 야간 수색 강화 계획 발표</li> </ul>
	<b>어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성호와 운반선 간의 조업 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성호, 운반선과의 어획물 이전 작업 중 침몰, 조업 방식 문제 논란</li> <li>· 어획물 과다 적재로 인한 선체 기울어짐, 선체 전복 원인으로 분석</li> </ul> </li> <li>- <b>어선 안전규정 강화 요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원들의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 안전규정 미준수 논란</li> <li>·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논의, 어획량 제한 규정 강화 필요성 제기</li> </ul> </li> <li>- <b>사고 해역 수색 확대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 53척과 항공기 9대 투입, 해안가까지 수색 범위 확대</li> <li>·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낮은 시정 거리로 인해 수색 작업 난항</li> </ul> </li> </ul>
	<b>실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종자 가족 대책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가족, 구조 당국의 수색 작업에 대한 신속한 대책 촉구</li> <li>· 사고 현장 방문 및 수색 진행 상황 점검, 구조 골든타임 강조</li> </ul> </li> <li>- <b>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경과 해군, 야간 수색 강화 및 수색 범위 동서 64km, 남북 29km로 확대</li> <li>· 심해잠수사 투입 후 선내 수색 계획, 시신 발견 및 인양 작업 진행</li> </ul> </li> <li>- <b>수색 장비 및 인력 동원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V와 다이빙벨, 민간 구난업체 장비 투입, 심해잠수사 9명 대기</li> <li>· 수심 90m 이상에서 수색 작업 진행, 높은 유속으로 작업 어려움</li> </ul> </li> </ul>
	<b>비양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비양도 인근 사고 해역 상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금성호 침몰, 사고 해역 조류 강도 높음.</li> <li>· 수색 작업 중 시정 거리 50cm 이하, 해류 영향으로 작업 어려움 발생.</li> </ul> </li> <li>- <b>지역 주민의 협조 및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양도 어업 공동체, 수색 작업 지원 및 실종자 가족 위로.</li> <li>· 현지 어선들의 협력 요청, 해양 수색 작업 지원 지속.</li> </ul> </li> <li>- <b>해경과 해군의 공동 수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양도 주변 해역에서 집중 수색, 함선과 항공기 동원 계획 발표.</li> <li>· ROV 수색 이후 심해잠수사 투입 검토, 바지선 고정 작업 진행.</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고도 산업 선도 기업 육성 목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저고도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 기업과 특화된 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산업체 간 협력과 혁신 촉진 목표 수립</li> <li>- 저고도 산업은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항공기술과 신세대 정보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기술 돌파와 새로운 응용 가능성 기대</li> <li>- 공업정보화부는 무인화, 전동화, 지능화 저고도 장비의 연구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와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생태 보호 복원 공보 2024’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자연자원부는 동아시아 해양 회의에서 첫 국가 생태 보호 복원 공보를 발표함. 공보는 생태 보호와 복원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li> <li>- 공보는 신중국 75년 역사에서 생태 보호와 복원의 발전 단계를 분석하고, 국가의 생태 복원 정책과 전략적 의지 표명을 강조</li> <li>- 2018년 이후 생태 보호 성과와 주요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생태 보호 및 복원 전략과 목표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개 부처 공동 발표, 고령자 서비스 소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민정부와 상무부 등 24개 부처는 고령자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을 공동 발표함.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고품질 서비스 제공할 계획</li> <li>- 스마트형 가정 요양 침대 건설 및 ‘지능형 요양원’ 설립 추진, 전자지도 개발 등 고령자 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촉진 계획 포함</li> <li>- 고령자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각종 시설 확충과 장비 업데이트, 적합화 개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 中 ‘11/11 온라인 소비 축제’, 새로운 시장 트렌드 반영
  - 올해 ‘11/11 온라인 소비 축제’ 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성과가 크게 증가
  - 중고 제품 교환과 친환경 소비 활성화로 그린 소비 트렌드가 강조되며, 문화적 및 상업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국 국산 브랜드 인기 상승세
  - 전문가들은 대규모 할인과 맞춤형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소비 의향이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소비 플랫폼 간 협력이 중국 새로운 소비 시장의 활력을 촉진하였다고 분석
- 중국, 고품속 해역 첫 해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 중국 장강삼협그룹(长江三峡集团)은 동산 해역에서 고품속 해상 태양광 발전소의 첫 번째 발전 유닛(unit)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었다고 발표
  - 이 발전소는 연평균 3억 kWh의 청정 전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연간 표준 석탄 9만 톤 절감 효과 기대됨. 에너지 구조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태양광 발전과 어업을 결합한 복합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며, 상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부에서는 어류 양식이 가능하도록 계획
- 폐기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돌파
  - 중국 연구팀이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룸. 저공용 용매를 사용해 기존의 복잡한 재활용 공정을 단순화 실현
  - 새로운 기술은 리튬과 코발트를 우선적으로 추출해 금속 회수율을 높임. 전통 방식보다 비용과 환경 위험이 크게 감소될 전망
  - 이 기술은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분 조절 메커니즘을 분석, 리튬의 우선 추출 및 코발트의 정밀 분리를 가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녹색 금융으로 해상 풍력 발전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인민은행 등 4개 부처는 녹색 금융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임.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li> <li>- 해상 풍력은 단일 장비의 대용량 설치가 가능해 시장 잠재력이 증대. 중국은 세계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li> <li>- 중신은행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제품을 개발해 녹색 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할 방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탄소중립 표준화 기술위원회’ 설립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길림성에서 탄소중립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설립됨.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표준 시스템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li> <li>- 기술위원회는 길림성의 주요 산업에 맞춘 표준 제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li> <li>- 길림성 시장감독청과 발개위는 정책, 자금,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핵에너지 산업 발전 신생산력 제안서’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핵에너지 고품질 발전 대회에서 ‘핵에너지 산업 신생산력 제안서’가 발표됨. 핵에너지를 통한 고효율 저탄소 전력 공급이 강조</li> <li>- 제안서는 혁신과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핵에너지 생산력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중국은 현재 102개의 가동 및 건설 중인 핵전력 설비를 운영 중이며,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공지능 조직 수, 190만 개 돌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조직 수가 190만 개를 돌파함. 특히 동남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전체의 14.7%를 차지</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조직은 기술과 정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환이 빠르게 진행</li> <li>- 하이난성은 5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AI 대성장 지역으로 부상 중이며,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가속화 추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싱가포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싱가포르, 2025년 예산안에서 생계비 및 고용안정 문제 해결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 생계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로렌스 윈 총리가 이를 공식 발표</li> <li>- 기술 업그레이드, 경제 전략, 취약 계층 지원 등 네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지원 방안 계획 포함</li> <li>- 정부는 기존 ‘스킬스퓨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높은 생활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 검토</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ASEA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남아시아, 미-중 무역 분쟁 속 공장 이전 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음.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li> <li>- 태국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1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확보했으며,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부문에서 1,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li> <li>- 동남아시아는 미-중 무역 긴장의 여파로 공급망 재조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각국이 이에 대비한 산업단지 개발을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도네시아, 중국과 리튬·녹색에너지·관광 분야 협력 강화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리튬, 신에너지, 관광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인도네시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신에너지 차량, 리튬 배터리,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의 자원과 생산 능력을 활용해 광업 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획</li> <li>-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광 회복을 위해 신규 비자 정책을 도입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코코넛 수출 등 다양한 무역 협정 체결</li> </ul> <hr/> <p>○ 인도네시아, 바이오 연료용 팜유 생산 확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에 따라 팜유 생산량 확대 계획을 발표함. 수입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하는 목표로 설정</li> <li>- 산림 노후화로 인해 팜유 생산이 정체되고 있어, 정부는 농업 관행 개선과 재식재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할 예정</li> <li>- 재식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2045년까지 팜유 생산량이 8,3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 감소 우려를 해소할 계획</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말레이시아</b></p>	<p>○ 말레이시아, 2024년 3/4분기 서비스업 매출 5.9%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4분기 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함. 도소매, 식품, 숙박 부문이 성장 주도</li> <li>- 전문 서비스, 부동산 부문은 11.2% 성장했으며, 총 매출 407억 링깃을 기록함. 항공 여객 수송량도 14.1% 증가해 교통 부문 성장세 지속</li> <li>- 민간 의료,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약 12.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양한 서비스 부문이 매출 성장에 기여</li> </ul> <hr/> <p>○ 말레이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외교부 차관은 상임이사국의 자의적인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촉구</li> <li>-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거부권 제안을 제시하고,</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팔레스타인 주권 국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중국해 명칭을 ‘동남아해’ 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제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li> </ul>
	<p>○ 말레이시아 재무부,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재무부 제2장관은 고성장과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국가투자열망(NIA)'과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li> <li>- 반도체 전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신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직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li> <li>- 인베스트말레이시아 포털을 출범시켜, 투자자에게 말레이시아 경제 및 투자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li> </ul>
	<p>○ 말레이시아, EU와 스마트시티 개발 파트너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디지털부장관은 EU 대표들과 스마트시티 개발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li> <li>-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를 25.5%까지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고, EU 디지털 도시 사업자들로부터 주요 투자 유치를 계획</li> <li>-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및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을 도입해, FDI 유치를 위한 5G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li> </ul>
	<p>○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지화 규정 강화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화 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임. 투자산업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개발 예정</li> <li>- 외국 기업들은 현지 장비 구매 및 현지 계약자와의 파트너십 체결 요구를 받게 되며, 말레이시아의 국가투자열망(NI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li> <li>- 신규 정책 초안 작성 시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인도네시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내수 시장 규모에 맞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p>
필리핀	<p>○ 필리핀, 글로벌 무역 긴장 속 FTA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경제개발청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더 많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함. 한국과의 협상을 마쳤으며, UAE 및 EU와 협상이 진행</li> <li>-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제기되며, 필리핀은 對미 수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대응할 예정</li> <li>-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9월 기준 수출의 약 17.3%를 차지하며, 수입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부상</li> </ul> <p>○ 필리핀,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성장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터넷 경제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20% 성장,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이 23% 증가</li> <li>- 필리핀 정부는 인터넷 경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li> <li>-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BNPL(지금 구매, 나중에 결제) 수요가 성장 동력으로 지목되며,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과 전자 지갑 사용 증가가 긍정적인 성장세를 촉진</li> </ul>
일본	<p>○ 일본, 소 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카야마현 가사오카시에서 소 똥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가동됨. 메탄가스를 발효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li> <li>- 지역 농가의 참여로 설립된 이 발전소는 소똥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성, 이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며 탈탄소화에 기여</li> <li>- 발전 후 남은 잔여물은 비료로 제공되어 지역의 순환 경제를</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창출하고, 연간 약 4억8000만 엔의 수익을 예상</p>
	<p>○ <b>일본, 반도체 산업 지역 연합체 설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사가현에서 반도체 제조 및 설계, 후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합체가 설립됨. 산총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기업 및 대학과 협력</li> <li>- 제조 센싱 기술을 SUMCO의 생산 라인에 도입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품질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설정</li> <li>- 오픈소스 툴을 활용한 설계 플랫폼 구축 및 3D 패키징 기술 개발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li> </ul>
	<p>○ <b>일본 우라야스시, 숙박세 도입 계획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라야스시는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임. 관광과 베드타운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설정</li> <li>-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유지 비용을 숙박세로 충당할 계획이며, 2026년 봄부터 시행할 예정</li> <li>- 숙박세는 1인 1박당 100엔 수준으로 설정되며, 수학여행객 등 일부 대상은 면제될 계획</li> </ul>
	<p>○ <b>일본 홋카이도, 해상풍력 발전 거점항으로 전환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내 항구들이 해상풍력 발전 거점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 석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li> <li>- 무로란 항과 루모이 항은 해상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거점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부품의 조립 및 보관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예정</li> <li>-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과 연계된 트레이닝 센터 설치도 고려</li> </ul>
	<p>○ <b>쿠보타, 농업과 태양광 발전 결합한 프로젝트 전국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보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2024년까지 50개소 설치 예정</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활용해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수익 일부는 농가와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침
-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며,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

#### ○ 니가타현 해수욕객 감소, 1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 니가타현의 2024년 여름 해수욕객 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75만 명으로 집계됨. 장마 지연과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해수욕객 수는 1990년 822만 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레저 활동의 확산과 기후 변화도 영향을 미침
- 니가타현은 해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SUP와 요가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자 노력

#### ○ 교토 상공회의소, 교토산업대와 협력 협정 체결

- 교토 상공회의소는 교토산업대와 창업자 육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 협정을 체결함. 협정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됨.
- 협정 내용에는 학생 대상의 상업 교육 강화, 창업자 지원, 국제 교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됨.
- 교토산업대는 회계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상공회의소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

#### ○ 센다이 국제회의, 관광산업의 재해 대응 논의

-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관광 레질리언스 서밋에서 관광산업의 재해 대비 방안이 논의됨.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참여
- 회의 결과 ‘센다이 선언’을 채택하여, 재해 발생 시 관광업의 지속과 재개를 위한 관민 협력 방안을 제시
- 일본은 재난 대비 선진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일본 지방 창생 정책, 국고 의존성 심화로 실패 지적**
  -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이 10년간 추진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로 인해 국고 의존성이 심화됨. 자치권 확대 목표는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
  - 2014년 시작된 정책은 지역 인구 유입을 목표로 했으나,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며 성과를 미취득
  -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분권화 부족과 자금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
- **일본 나가노현, 폐식용유로 고순도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
  - 나가노현 남신 지역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고순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
  - 이 프로젝트는 지역 기업들이 협력하여, 폐식용유를 정제해 B5 경유로 제조하고 판매할 계획
  - CO2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하며, 기존 중장비와 발전기 연료로도 사용 가능해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예정
- **규슈·오키나와, 10월 소규모 파산 사례 증가**
  - 규슈·오키나와 지역에서 10월 파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82건으로 집계됨. 소규모 업체 파산이 증가세
  - 서비스업과 의료·복지 관련 사업자들이 주요 파산 원인으로 지목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10억 엔 이상의 대형 파산은 없었으나, 대부분의 파산은 1억 엔 미만의 소규모로 집중
- **일본 인구 감소 문제, 동북 전략 회의에서 논의**
  - 동북 경제 연합회가 주최한 전략 회의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관금 협력 방안이 논의
  -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고용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여성 인구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에서는 동북 지역의 쌀 수출 사업도 보고되었으며,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다수의 상거래 계약이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니가타시, 바이오매스 비율 25% 쓰레기봉투 도입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가타시는 바이오매스 비율을 25%로 높인 쓰레기봉투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감 조사도 실시 예정</li> <li>- 기존에 10% 바이오매스 비율의 쓰레기봉투를 사용 중이나, 새로운 봉투는 식물성 원료를 추가하여 제조 원가를 절감할 계획</li> <li>- 모니터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후쿠시마시, 재생 에너지 규제 조례 기존 시설까지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시마시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재생 에너지 규제 조례에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포함하기로 결정</li> <li>- 조례에 따라 기존 시설이라도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 당국이 현장 조사 및 개선 요구 가능</li> <li>- 시민의 안전과 경관 보호를 위한 조치로,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쿄항, 이동식 크레인 연료로 수소 사용 시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항에서 일본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 운용이 시작됨. CO2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 탈탄소화 정책의 일환임</li> <li>- 크레인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치바현의 공장에서 운송되며, 현장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서 고압으로 충전 가능</li> <li>- 도쿄항은 2050년까지 CO2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항구 내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 가속화 추진</li> </ul> </li> </ul>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